

회 의 록

회의명	2025년도 제2차 상명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시	2025. 1. 9.(목) 14:00 ~ 15:45		
장소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3층 317호		
참석위원	김상조, 박소영, 김길환, 은성민, 김주은, 강윤지, 조혜영, 이태희	불참위원	없음.
참고인	기획조정처 김동근 처장, 기획예산팀 정윤상 팀장, 기획예산팀 김용균 차장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5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심의 2. 등록금 수입 등 2025학년도 예산편성 현황, 관련 자료 보고 및 검토 		
심의내용	<p>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의를 선언함.</p> <p>참고인(기획조정처장)이 회의참석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최대한의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였음을 안내함.</p> <p>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아래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자료 구성 2.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5학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2) 2025학년도 중점사업 3. 2025학년도 예산편성 현황(편성 진행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예산 편성 2) 지출예산 편성 3) 상명대학교 각 단위부서 예산요구 현황 4) 등록금수입 인원 산출근거 5)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근 3년간 등록금 인상률 현황 나. 최근 3년간 입학금 인상률 현황 다.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검토 요인 라.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세부안 6) 2025학년도 본예산 주요 항목별 증감현황 4. 2025학년도 학생지원 강화 및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 관련 예산현황 		

또한,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특히 2024학년도 대비 대폭 조정이 예상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사업비의 예산 규모가 불확실하고 축소될 예정이라 이러한 상황을 예산편성 시 반영하였다고 발언함.

위원장이 '학생지원 강화 및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 관련 예산 현황'은 수합 경로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였고,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양캠퍼스 학생처에서 수합 받았음을 답변함.

위원장이 2025학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자료를 설명함. 또한, 예산의 수입 부분에서 특히 국고사업 등은 미정임. 지출은 긴축편성을 원칙으로 했으며, 회계별 지출부분에서 예산이 총 11.07%정도 부족하다고 설명함.

위원장이 등록금수입 인원 산출근거에서 학생수가 줄었는데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학부 외국인 학생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답변함.

위원장이 최근 3년간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 설명함. 입학금은 최근 폐지되었고, 등록금 인상률의 한도에 대해서 설명함. 2025학년도 지출 대비 대학 예산의 부족분이 약 11.07%정도라고 설명함.

위원장이 2025학년도 본예산 주요 항목별 증감현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위원이 같이 검토함.

위원장이 등록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함.

교직원 위원이 미래교육원의 수강료 증가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신규사업의 수입과 지출 부분은 감액될 수 있다고 답변함. 또 다른 교직원 위원이 전체적으로 수입 부분에서 큰 변동은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발언함.

위원장이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함.

교직원 위원이 작년까지 등록금 인상 여론이 별로 없었는데, 언론을 통하여 확인했을때 올해 갑자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 이슈로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였음. 이후 십수년 이상 동결이 지속되다보니 현재의 등록금으로는 더 이상 지출을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이유로 보인다고

답변함.

위원장이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해 계속 설명하며, 위원들에게 질의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봄.

위원장이 직원보수 및 명예퇴직 인원수, 시간강의료에 대해서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함. 이에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명예퇴직 예정인원 및 퇴직금, 시간강의료, 강사보수 등에 대해서 답변함.

교직원 위원이 전임교원 확보율은 충족하고 있는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충족한다고 답변함.

교직원 위원이 관리운영비의 증액 금액이 큰 이유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천안 학술정보관의 중앙제어 냉난방시스템 공사, 교육환경인프라 기금인출 건물 개·보수비용, 화장실 개선공사 등, 천안 캠퍼스 홍보전광판 등의 사업으로 예산 요청하였고, 최근 공사 관련된 사업은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큰 인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답변함.

교직원 위원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은 관리운영비의 어느 항목에 쓰여지는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금액이 아주 큰 항목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예산이 소요되어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함.

외부 위원이 자연 인건비 인상분 말고 시간강의료 등에서 지출예산이 줄어줄 여지가 있는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강의 관련 조절 및 다른 방법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답변함.

외부 위원이 교직원 퇴직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참고인(기획예산팀)이 직원 퇴직인원이 많아졌고, 시간강의료의 시간강의수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함.

외부 위원이 각 계정과목별 비율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통상적인 비율로 2025학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답변함.

외부 위원이 고정자산매입지출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인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2024학년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원을 받아 예산배정 많았으나, 2025학년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사업비의 예산 규모 불확실 및 축소 예정으로 예산배정이 불투명하므로 올해 예산은 축소되며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답변함.

학생 위원이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대학 학생들을 위한 국고지원이

	<p>있는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자유전공학부대학만을 위한 국고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으나, 기존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 등으로 사전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국고지원 사업 수주(고교교육기여지원사업 등) 시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은 있다고 답변함.</p> <p>교직원 위원이 자유전공학부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으로 반영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예산은 자유전공학부대학 및 우리대학 학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답변함.</p> <p>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어느 정도의 인상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함.</p> <p>교직원 위원이 2011년 이전에는 등록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2011년, 2010년 각각 약 3.9퍼센트, 약 3퍼센트 정도 인상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함.</p> <p>교직원 위원이 등록금 자료 중 소비자 물가상승분이 누적분(복리식)으로 계산된 것인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단순 합산한 것이라고 답변함.</p> <p>위원들 전원이 언론 등을 통한 타 대학의 상황을 살펴볼 때 5퍼센트 초반의 인상률이 평균적인 것으로 의견을 모음. 다수의 위원들이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인상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p> <p>이에 대해 참고인(기획조정처장)이 등록금 법정상한 인상률은 5.49%이지만, 법정상한 인상률은 학생들 및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는 인상수치라고 생각됨. 타 대학의 상황과 내외부적인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대학은 교육환경개선, 교육단위·행정조직 운영 효율화와 각종 국고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5.2% 내외의 등록금 인상률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다시 한번 책정이 합리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와 감사의 말씀을 전함.</p> <p>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함.</p>
<p>작성자</p>	<p>이태희(간사)</p>

2025. 1. 9.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위원(장) 김 상 조 (인/서명)

김상조

위 원 박 소 영

박소영

위 원 김 길 환 (인/서명)

김길환

위 원 은 성 민

은성민

위 원 김 주 은 (인/서명)

김주은

위 원 강 윤 지 (인/서명)

강윤지

위 원 조 혜 영 (인/서명)

조혜영

위원(간사) 이 태 희

이태희

· 끝.